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17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수영장에서 열린 제1회 광주전국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에서 충남체고가 강원체고의 골문을 향해 슛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제1회 광주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와 함께 열리며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스워밍 등 4개 종목에 선수 4000여 명이 참가, 오는 24일까지 경기를 치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이나 18홀 끝내기 버디 KLPGA, 퀸즈파크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300야드 장타를 평평 터트리며 주목을 받아온 신인 윤이나(19)가 시즌 14번째 출전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윤이나는 17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쿠우드컨트리클럽 산길·숲길 코스(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에버플라젠 퀸즈 크라운(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정상에 올랐다. 첫날부터 나흘 내내 선두를 지킨 끝에 거머쥔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이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며 추격해온 박지영(26)을 18번 홀(파4) 6m 버디로 따돌리는 극적인 승부까지 연출했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는 윤이나는 상금 랭킹 5위(3억744만원)로 올라섰고, 신인왕 포인트는 2위로 상승했다. 작년 드림투어 상금왕을 차지하고 이번 시즌부터 KLPGA 투어에 입성한 윤이나는 엄청난 장타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시즌 초반에는 KLPGA 투어 코스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전했지만 지난달 BC 카드·한경 레이디스컵 3위에 이어 지난 3일 끝난 맥클·모나파크 오픈 준우승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이번 대회에서 윤이나는 장타력을 아낌없이 과시했다. 2개 홀에서 측정하는 평균 드라이버샷 비거리가 270야드를 넘었고, 316야드를 찍은 적도 한 번 있었다. 박지영은 18번 홀(파4) 5m 버디 퍼트를 놓쳐 시즌 2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바심을 넘어라... Let's go woo”

우상혁,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도전 높이뛰기 예선 2m28 '홀쩍'...바심과 함께 결승 진출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밝은 표정과 경쾌한 움직임으로 4차례 시도를 모두 성공하며, 공동 1위로 2022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결선에 진출했다. 우상혁이 2m28을 1차 시기에 넘은 순간, 한국 육상 높이뛰기에서 1999년 세비아 대회 이진택 이후 23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선 진출자가 탄생했다. 우상혁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2m28을 넘어 공동 1위로 결선 진출권을 손에 넣었다. 이날 우상혁은 2m17, 2m21, 2m25,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다. 결선 자동 출전 기록은 2m30이었지만, 2m28에서 공동 12위를 포함한 결선 진출자 13명이 결정돼 예선이 종료됐다. 남자 높이뛰기 예선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는 32명이었다. 그러나 3명이 대회 직전 출전을 포기했고 마즈디 가잘(35·시리아)은 경기 당일 기권해 28명만 실제 경기를 치렀다. 우상혁은 2m17을 1차 시기에 가볍게 넘어선 뒤, 양손으로 V를 그렸다. 2m21도 1차 시기에 넘은 우상혁은 양손 검지를 들고 가볍게 춤을 췄다. 바가 높아져도, 우상혁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 우상혁은 2m25를 1차 시기에 성공한 뒤, 중계 카메라를 응시하며 '뽀빠이 자세'를 취했다. 2m28도 '여유 있는 높이'로 1차 시기에 넘은 우

상혁은 양손 검지를 휘두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표정과 행동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이날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예선을 마친 선수는 우상혁과 무타즈 예사 바심(31·카타르), 장고 로벳(30·캐나다), 안드리 프로첸코(34·우크라이나) 등 단 4명뿐이었다. 바심과 함께 도쿄올림픽 공동 1위에 오른 장마르코 탐베리(30·이탈리아)는 2m25와 2m28을 모두 3차 시기에 넘어, 힘겹게 결선에 진출했다.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셸비 매튜언(26·미국)도 2m28을 3차 시기에 넘어 탈락 위기를 면했다. 2m28을 성공한 11명과 2m28에는 실패했지만 2m25를 1차 시기에 성공한 에드가 리베라(31·멕시코), 마테우시 프시빌코(30·독일)가 공동 12위로 결선행 막차를 탔다. 우상혁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리는 결선에서 한국 육상 사상 첫 세계선수권 우승에 도전한다. 경기 뒤 우상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결승전, 모두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Let's go woo”라고 썼다.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결선에 진출한 한국 선수는 이진택과 우상혁, 두 명으로 늘었다. 이진택은 1997년 아테네 대회에서 2m28을 넘어 예선을 통과하고, 결선에서는 2m29로 8위에 올랐다.



우상혁

1999년 세비아 대회에서도 이진택은 2m29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고, 결선에서 2m29를 넘어 6위를 차지했다. 이진택이 1999년 대회에서 달성한 6위는 실외 세계선수권 한국 높이뛰기 역대 최고 성적이다. /연합뉴스

9초86... 프레드 커리,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 우승

프레드 커리(27·미국)가 미국에서 처음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에서 우승하며 '우사인 볼트 후계자'로 부상했다. 커리는 17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선수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86으로 우승했다. 마빈 브레이시(30)와 트레이본 브룸웰(27·이상 미국)은 9초88의 같은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0.002초 차로 순위가 갈렸다. 브레이시가 9초874로 2위, 브룸웰이 9초87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남자 100m에서 한 국가가 1~

3위를 휩쓸 건, 이번이 모두 세 번째다. 모두 미국이 만든 기록이다. 1983년 1회 대회가 열린 헬싱키에서 칼 루이스, 켈빈 스미스, 에미트 킹이 1~3위를 차지했고, 1991년 도쿄에서도 루이스, 리로이 버렐, 데니스 미첼이 1~3위에 올랐다. 미국육상은 자국에서 개최한 첫 세계선수권에서 '육상 최고 인기 종목 남자 100m' 시상대를 독식하는 짜릿한 역사를 만들었다. 자메이카가 주목하는 신예 오발리크 세빌(21)은 9초97로 4위를 해, 시상대에 서지 못했다. 2019년 도하 대회 우승자인 크리스천 콜먼(26·



프레드 커리

미국)은 10초01로 6위에 그쳤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9초80으로 커리(당시 9초84)를 제치고 우승한 러몬트 마르셀 제이컵스(28·이탈리아)는 허벅지 통증 탓에 준결선에서 기권했다. 커리는 대회 전부터 세계육상연맹이 '우승 후보 1순위'로 꼽은 스프린터였다. 그는 6월 25일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미국 대표 선발전 준결선에서 9초76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2022년 세계 1위' 기록을 세우더니, 결선에서는 9초77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팬들에 인사하고 떠나는 토트넘 손흥민. 쿠방플레이 시리즈 팀K리그, 세비아 FC와 친선경기를 마친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1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